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김수홍 (고려대)

참고문헌

경혜주 (2005). 현대소설분석을 통한 교육적지향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락니란 (2009). 초등국어교과서 내용에 대한 세계관적 분석과 평가.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인환 외 (2007). 문학교육론 제 5판. 서울: 삼지원.
 (1996). 소설론. 서울: 삼지원.
 김대행 외 (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서울대출판부.
 김진경 (2007). 문학교육의 위상과 정체성 비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준 (2008). 기독교적 내러티브를 통한 사회수업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영 (2007). 기독교학교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형욱 (2010). 이야기 형식에 근거한 초등도덕과 수업구성방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담 (2005).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문학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진 (2009). 문학중심통합 지도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경민 외 (2010).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박상진 (2006).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박순숙 (2011). 아동문학중심초등국어과 통합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철화 (2010). 기독교학교의 통합교수 방법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은주 (2006). 문학교육을 위한 동화세계 구성방안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경숙 (2010). 문학중심통합단원 구성방안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광석 (2004). 세계관 학교를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 확립과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극복.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대용 (2004). 7차 문학 교육과정의 원리를 활용한 문학교육 방법론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연화 (2009). 국어교과서단원구성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유미 (2009). 원작동화를 활용한 문학교육방법.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미 (2008).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현정 (2003).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해경 (1999). 중학교 소설지도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성은 (2005).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등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교은 (2007). 읽기와 문학 통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광식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전정희 (2010). 공교육에서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현정 (2009). Egan의 이야기형식모형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기욱 (2002). 기독교 교육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실태조사안산동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종신대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광진 (2003). 7차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희승 (2010). 개혁교회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명숙 (2006). 읽기 교육과정과 문학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학교육학, 19, 89-127.
 Andreola, K. (2007). 샬롯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 (임종원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Edlin, R.J. (2004). 기독교교육의 기초. (기독교학문연구회교육문화 역). 서울:그리심.
 Gabelein, F.E. (1991). 신본주의교육. (이창국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Knight, G.R. (1995). 철학과 기독교교육. (박영철 역). 대전: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Levison, K. (2006).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임신희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Levison, K. (2006). 샬롯메이슨 교육법. (임신희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Mason, C. (2010). 교육철학. (노은적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Overman, C. & Jonhson, D. (2007). 진리와 하나님 교육. (김성훈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원전은 2003년 출판)
 Palmer, P.J. (2000).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IVP.

초록

본 연구는 면담, 관찰, 문서분석 등을 통해 한동대학이 갖는 독특한 맥락 속에서 한동대학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과 그 특징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술한 사례연구이다. 학생들이 말하는 교육적 경험의 특징은 '공동체를 통한 전인적 성장'이었고, 구체적 주제는 첫째, '비전: '사명'에 대한 치열한 고민', 둘째, '인성: 일상속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배움', 셋째, '전공 선택: 관심과 재능의 발견과정', 넷째, '공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사회로의 준비', 다섯째, '신앙: 세상을 보는 기본틀'로 요약되었다. 이런 학생들의 경험에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공식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경성제도적 요인과 비공식 교육과정, 구성원 공동체 특성, 구성원의 공유한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연성문화적 요인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가운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울 것, 제도 뿐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이해할 것, 교육이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대학 구성원과 공유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한동대학교, 교육적 경험, 대학문화, 전인적 성장

I. 서론

혹자는 한국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가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대학은 좋은 학생을 뽑는다는 관심이 많지만, 뽑아놓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덜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 4년간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의 현재 더욱 중요해졌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하게 되었고, 국가의 경쟁력이 고등교육 단계를 통해 배출되는 인재의 질과 큰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최상덕 외, 2008; 신현석, 2008). 개인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이미 80%를 넘어 2009년 현재 약 320만 명(37)의 학생들이 각종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새로이 대학에 들어가서 4년간의 시간 및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교육을 받는다 (신정철 외, 2008). 4년간의 기회비용, 또한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맞추어져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오육환, 2003), 중등교육의 목표가 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고등교육의 질'이라는 주제하에, 고등교육의 학습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로 이어졌다 (최정윤 이병식,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학습성과를 질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측정하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투입과 과정요인으로 나누고, 투입요인에는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환경을, 과정요인에는 학교의 기관적 특성,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 학교만족도, 물리적 시설, 풍토 및 비전등을 제시하였다 (김안나 외, 2003; 김은경, 2005; 김현관 외, 2001,

337) 2009년 통계에 의하면 방송통신대학 277,372명을 포함해 총 3,189,951명이 각종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교육통계 사이트)

2002; 서민원, 1995a, 1995b, 1997, 2003; 신경철 외, 2008a; 오영계 외, 2001; 최정운 외, 2007).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무엇이고,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논한다는 측면에서 위의 연구들은 아쉬움을 남긴다. 바로 학습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관련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빈도만 알 수 있을 뿐,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기 때문이다 (Kuh, 2005: xvi). 또한 실제로 대학에서의 학습은 인지적 측면을 넘어서는 다양한 변수를 가진 한 개인이, 대학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역시 다양한 변수를 가진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대학의 독특한 환경 및 교육과정, 비전 및 학습풍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및 세계관들이 그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Astin,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의 변인 및 개별 대학이 가질 수 있는 학교의 특성 중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고려한 것은 제한점이 아닐 수 없다.

대학 교육의 과정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대학을 선택하여 교육의 과정상의 특징 및 특징 형성 요인을 찾아내어 타 대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최정운 외, 2007, 최정운·이병식, 2008), 이런 연구들은 개별 대학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에서는 찾아내기 힘든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Kuh, 2005; Light, 2001). 즉 대학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양적연구와 함께,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교육적 경험이 무엇인지, 그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그런 경험에 개인의 특성 및 대학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히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학생들의 시각을 고려해 보여주는 현장중심적인 질적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경철 외, 2008; Clark, 2008).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 대학을 사례로 선정하여 질적인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과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정 대학은 지방의 신설 교육중심 대학 교인 한동대학교(이하, 한동대)이다. 한동대는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이며, 학부교육중심의 종교계 지속형 대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이해는, 학생 층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의 사립대학들의 특성화 전략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적 경험

인간의 삶 자체, 즉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겪는 모든 것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듀이는 경험을 인간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런 다양한 경험 중 교육적 경험은, 교육을 무엇으로 보는지와 관련이 있다. ‘교육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이란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해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정의 중 하나는 그것을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Dewey, 2002; 이돈희, 1993). 이 때 성장은 단순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기 보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본다 (이돈희, 1993: 5). 즉 교육적 경험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험’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기에, 어떤 경험을 교육적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개인이 가진 성장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생들의 성장, 혹은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는 크게 두 부류

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학생발달이론’과 관계된 것으로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 혹은 학생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효과 (College effect)’와 관련된 것으로 대학의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에 초점을 둔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전자는 심리학적 시각(Psychological perspective)이 강조되는 것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성장단계를 설명하며, 특히 각 개인의 변화의 성향이 그 변화 내용에 초점을 둔다. 후자는 사회학적 시각(Sociological perspective)이 강조되는 것으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의 대학경험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변화,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두 접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전자가 학생의 ‘어떤’ 면에서의 변화에 집중한다면, 후자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Pascarella&Terenzini, 2005).

‘학생발달이론’에서 대학생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Chickering의 7가지 과업(벡터:vector)³³⁸이 있다 (Pascarella & Terenzini, 2005). 이 과업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개인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사회나 국가와 같은 보다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겪게 되는 것으로 본다. 각 과업에 대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한 번 성장하면 다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Chickering(1993)은 7가지 발달과업으로 ① 유능감의 성취, ② 정서의 관리, ③ 자율성의 확립을 통한 상호의존, ④ 성숙한 대인관계, ⑤ 정체성 확립, ⑥ 인생의 목적, ⑦ 통합능력을 들었다. 이 중 정체성 발달은 이론의 핵심으로, 앞의 네 가지 과업은 정체성의 확립을 돕고,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에 인생의 목적 및 통합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다 (Chickering, 1993).

학생의 성장에 대학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는 학생의 변화는 대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학생에게 일어난 결과라는 관점에서 ‘학생성과(Student outcome)’, ‘대학성과(College outcome)’, ‘학습성과(Learning outcome)’등의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고 있다. Ewell(1985)은 대학성과(College Outcome)의 구성요인으로 ① 인지발달: 대학 졸업시에 기대되는 일반 교육과 전공지식의 습득, ② 기능발달: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기능과 같은 기본 기능의 습득, ③ 태도발달: 학생의 가치와 그러한 가치 변화 정도, ④ 행동발달: 대학 졸업직후 학생의 수행력 등을 제시하였다.

대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서 Pascarella & Terenzini(2005)는 대학에서의 학생변화를 ① 인지능력 및 지식발달(비판적 사고능력, 형이상학적 추론을 포함), ② 심리사회적 변화 (자아정체성 발달,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독립심, 자기절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등을 포함), ③ 태도와 가치(정치적 성향, 시민의식, 민족성, 성역할, 직업관, 종교성, 예술성 등을 포함), ④ 도덕성 발달(도덕적 사고 및 행동을 포함) 등의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한편, 최근에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영성’과 ‘신앙’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Chickering et al, 2006). 영성에 대한 정의는 무척 다양하지만(Astin, 2004; Speck, 2005), 영성은 대체로 인간의 내적인 영역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공부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주변 사람 및 세상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질문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Astin, 2004), 진정한 자아, 일관성, 통합성등의 추구하고 관련된다 (Tisdell et al, 2003).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내면의 성장과 반성에 기반한 행동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Braskamp et al, 2006).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인지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왔던 것을 지적하며, 정체성, 영성, 인성, 신앙 등의 영역을 포함시켜 학생의 성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338) 그가 벡터(vecto)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7가지 요소들이 각각 방향성과 크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Chickering, 1969; Pas. 재인용). 이 벡터라는 개념은 task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과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이 학생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대학효과'이론을 들 수 있다. 보통 학생의 변화는 학생성과(Student outcome), 대학성과(College outcome), 학습성과(Learning outcome)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런 학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³³⁹⁾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그 차원도 여러가지이다. 대학이 학생의 교육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분석틀 중 한 가지는 투입(Input), 환경(Environment), 산출(Output)로 구성된 'I-E-O' 모형이다 (서민원, 1995a; 최정윤·이병식, 2008). 이 때, 산출은 '학습성과' 혹은 '대학교육의 성과'로, 환경 혹은 과정(Process)은 대학교육의 과정 및 대학 환경 전반으로, 투입은 학생 개인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Astin, 1993; 서민원, 1995a). 학습성과의 영향변인은 크게 '투입'과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투입'요인으로는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환경을, 과정요인에는 학교의 기관적 특성, 교육과정, 학교인적요소, 물리적 시설, 풍토 및 비전 등 대학 환경으로 묶일 수 있는 요인들과 학생의 대학활동 참여도를 나타내는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 등이 있다 (서민원, 1997; 최정윤·이병식, 2008; 오영재 외, 2001; Astin, 1993; Kuh et al, 2005; Pascarella & Terenzini, 2005). 학습성과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과정' 측면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고 (최정윤 외, 2007), 단일변수로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은 학생들의 경험의 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정윤·이병식, 2008; Astin, 1999; Kuh et al, 2005).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아본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아래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학생특성: 학생의 가정배경, 입학성적, 성격, 학습유형, 가치관 및 태도 등이 포함된다. ②대학의 구조적 특성: 설립유형, 설립목적, 대학 소재지, 대학의 규모, 입학난이도, 교수-학생 비율, 학부생 비율, 학생지원과 교수학습에 투입되는 재정의 비율, 교수월급, 기숙사 거주비율 등이 포함된다. ③조직 환경: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인식되는 조직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주요 구성요소로는 교육이념, 정규/비정규 교육과정, 집단 구성원의 성향, 조직문화 등이 있다. ④교수-학생 상호작용: 구성원간의 소통의 양적 정도와 그 내용을 의미한다. ⑤학생노력의 질: 학생이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된 경험, 구성원과의 교류, 비공식 교육과정에 들인 물리적 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학생의 교육적 경험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시발점은 2008년 11월, 연구자가 수강했던 수업의 기말과제를 위한 조사를 위해 친분이 있던 한동대 졸업생 두 명의 면담 및 문헌조사를 통해 한동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한동대만의 독특한 대학환경 및 문화가 있다는 것을 들은 때이다. 이후 대학교육의 의미와 및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대변될 수 있는 교육의 실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0년 2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은 한동대이다. 한동대는 1995년 포항에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종교계 대학, 대학원보다는 학부 교육에 중심을 두는 교육중심대학, 재학생의 80%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

형 대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첫 해 400명의 신입생으로 시작한 한동대는 2010년 현재, 11개 학부, 6개 대학원에 재학생은 총 3803명(학부생 3427명, 대학원생 376명), 교직원들은 총 231명으로 교수 153명, 직원 78명이다.

한동대학교의 교육은 장인공(工)로 표현된다. 밑의 가로획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 및 기초교육'으로, 무감독 양심시험, 인성교육, 봉사활동, 실무진산, 실무영어, 생활한자 및 중국어 의무 이수 등이 포함된다. 가운데 세로획은 '전문성 교육'으로 수요자 중심 전공선택, 복합전공교육, 팀티칭 및 토론식 수업,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제일 위의 가로획은 '국제화 교육'으로 100%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정, 모든 전공과정의 국제화 프로그램, 국제시민 및 자질교육 등이 포함된다. '기독교 신앙교육'은 이 공자의 토양이 되는 것으로 한동대 교육이 서 있는 터이기도 하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그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보통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간주된다 (Creswell, 2010). 사례 연구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단일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특히 사례 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할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Stake, 2000). 또한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과 정확적 조건이 긴밀히 연결되어, 정확적 조건을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때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어떻게' 또는 '왜'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 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때, 동시대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로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방법이다 (Yin, 2005).

연구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으로, 특히 한동대가 갖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독특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겪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학생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 한동대 학생들이며, 그들의 교육적 경험은 한동대라는 정황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확적 조건을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은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영향요인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 문화적 요인도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선택했다.

2010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세 차례 (각 3일, 4일, 14일) 연구자를 방문하였고, 이런 방문 기간 동안 심층면담, 참여관찰, 문서 및 영상자료 수집을 하였고, 그 분석도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방문 기간 주로 이루어졌다. 면담자는 학생 20명, 교수 7명, 교직원 4명으로, 학생 중 졸업생 및 편입생 등 서울에서의 면담도 수 차례 진행되었으며, 거리가 먼 졸업생의 경우 전화면담을 하기도 했다. 면담 이전에 한동대에 대한 문헌 및 방송을 통해서 한동대의 교육의 목표, 커리큘럼의 구조와 특징, 외부에서 보는 교육의 강점 요인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한 질문과 관련된 반구조화 된 면담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하였다. 면담 시간은 1시간~2시간 이었고, 내용은 면담자의 허락 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이들 내로 전사하였다.

방문 기간에는 입학식, 채플, 교수예배, 동아리 모임, 팀모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한동대 캠퍼스 내를 돌아다니며 교정의 분위기 및 학생들의 일상 및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학교의 분위기 및 일상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눈에 띄는 것은 관찰일기에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었다. 연구와 관련하여 한동대와 관련한 홍보영상자료, 한동대 소식지 '갈대상자', 총장강연자료, 한동대 중장기 발전계획, 신입생책자'한동자리', 한동대 인성교육매뉴얼, 소개집 'Calling for you', 교육실사역안내서, 공학교육혁신센터 뉴스레터 '공학과 그의 나라', 한동대 인성강좌 에세이, 기타 방송 및 언론에서의 기사 등, 학교 내부의 공식/비공식 자료 및 학교 외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339)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변화가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돈희, 1993; Astin,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Kuh, 2005)을 고려하여, 학생성과, 학습성과 등을 포함하는 학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겠다.

3. 자료의 분석

연구자는 면접 자료에서 나오는 많은 개념들에 코드를 부여했다. 이런 코드들은 크게 학생 본인의 배움과 성장과 관련된 경험과 그런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류되었다. 또 다른 차원의 범주는 학생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주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을 의미의 유사성 및 관계성을 바탕으로 범주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후기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는 범주화된 코드의 묶음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때로는 범주가 바뀌기도 하고, 범주 내의 코드가 다른 범주로 바뀌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큰 주제가 드러났다.

IV. 교육적 경험의 특징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은 '공동체를 통한 전인적 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의 경험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사명의 발견,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본인이 가지는 신앙 등 학교가 추구하는 지성, 인성, 영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전인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①비전: '사명'에 대한 치열한 고민, ②인상: 일상속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배움, ③전공선택: 관심과 재능의 발견, ④공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사회로의 준비, ⑤신앙: 세상을 보는 기본틀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비전: '사명'에 대한 치열한 고민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여겨지는 교육적 경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비전'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비전은 일종의 '사명'과 같은 것이었고, 이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은 인성, 전공선택, 공부, 신앙등의 경험과 많은 부분 겹쳐져 있었다. 즉 비전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배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한동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비전은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동대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에 설명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한동대 학생들이 말하는 비전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통하는 점들이 있었다. 비전은 "직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며, 나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남과 북이 통일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과 관계가 있었고, 진로나 직업을 넘어서는 것으로, 때로는 취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겨졌다. 학생들은 비전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 '소명', '사명', '꿈', '방향성'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비전은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의미와 목적, 혹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의미하였다.

학생들이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들의 대학선택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학생들은 한동대를 선택하게 된 계기로,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들었다. 회진학생은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학교 선택에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회진학생은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시도를 하는 대학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학문적 소양 외에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 (중략) 그 가치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 근대 단지 종교적인 가치라기 보다, 어떤 진리랄까? (중략) 그 가치 있잖아요. 정적, 희생, 사랑.... 그런 부분에서 '어' 되게 구별된

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에 대해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단순히 몽상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 돼서 막 눈물도 나오더라고요. (회진)

여러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까지 대학 입시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공부의 목적, 인생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대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길 기대했고, 그 고민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한동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학교에 입학해서도 학생들은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이런데, 한동대에서는 확실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들고,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수업을 통해서라기보다,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도전해주고, 교수님들도 그런걸 이야기해주시는 좋은 교수님도 너무 많고, 특별히 관계가 학생이랑 친밀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자주 해주세요. 그런 강의도 많고, 강의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에서도 성경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비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야기 해주시고, 왜 우리가 비전을 생각해야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야기해주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영현)

수업 뿐 만이 아니라 교수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정규 혹은 비정규 과정,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학년 때부터 팀제라고 해서 35명 정도를 한 교수님이 맡아서 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1학년 때부터 진행되면서, 사명, 비전, 나의 목표,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민수)

학생들은 본인의 비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적 사명 혹은 비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이 늘 이야기하는 한동대의 슬로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Why not change the world'로, 한동대 웹사이트 및 홍보동영상의 맨 첫 화면, 학교 소개지의 첫 페이지에 있는 슬로건이다. "세상을 바꾸지 않겠는가?" 혹은 "세상을 바꾸지"로 번역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배워서 남주자'이다. 면담을 했던 모든 학생은 한동대의 교육을 설명할 때 이 두 슬로건을 빼놓지 않았고, 두 슬로건을 자신의 목표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짧은 두 개의 슬로건은 한동대의 교육이념을 요약해주는 동시에 한동대 학생들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건(슬로건) 하도 많이 들어서 세뇌를 시킨다고 하는데, 저도 배워서 남줘야겠다는 생각이 원래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좋아요.(중략) 그렇죠. 수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주제들이 많이 오가요. 우리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외치기만 하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정한 올림인가. 이런 얘길 많이 하고,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는 되게, 지나가는 한동인 붙잡고 얘기해도 통한다고 생각해요.(태수)

정환학생은 '잇을 만 하면' 체질이나 팀모임을 통해서 학교의 슬로건과 그 의미를 항상 듣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비전을 다시 한 번 '다잡게' 된다고 했다.

많은 학생들은 한동대 교수들이 더 여건이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대에 남아서 회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교수들이 가진 비전,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여기 보면, 교수님들이 되게 좋은 직장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비

리그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 나오신 분들 많은데,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비전과 소망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뜻이 있고, 내가 먹고 살자고 이 직업을 하는게 아니라, 정말... 뜻이 있으셔서 하시니까 열정이 있으신 분들 많은데. (태수)

자신의 비전을 따라서 사는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 특히 말로만 비전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는 면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

비전은 한 차례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이 의미있게 여기는 경험은 자신의 비전이 무엇이다라고 발견한 것이라기 보다, 비전을 강조하는 한동대의 분위기 속에서, 비전에 관심이 많은 교수와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 고민해가고,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인성: 일상속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배움

한동대가 추구하는 '인성'은 대학의 비전 선언문과 교육이념에 드러나 있다. 비전선언문에는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교육이념에는 '사랑, 겸손, 봉사'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한동대 학생들이 인성, 혹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 봉사, 희생, 사랑과 같은 가치 및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필요한 사회성과 같은 것들로 대학의 비전선언문에 나온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 교육이념인 '사랑, 겸손, 봉사'와 다르지 않았다. "정직하게 되었다", "남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었다.", "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등으로 본인의 인성에 대한 배움 혹은 성장을 이야기했다.

한동대는 학생들의 인성적인 면의 성장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이 있다. 하지만 많은 한동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인성'과 관련된 경험은 주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일상의 생활을 통한 것이었다.

인성교육이 그냥 생활이 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보면서 배웠거든요.(현준)

한동대는 신입생은 전원³⁴⁰⁾, 전체 학생들의 80%가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기숙사의 시설은 그리 좋지 못하다. 연구자도 기숙사를 방문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4명의 옷장이 양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고, 이층침대 2개, 책상 4개가 들어가면 더 이상의 여유공간은 없었다. 화장실도 남자 한 명이 들어가면 딱 맞는 크기였다. 재현 졸업생은 이런 공간에서 생긴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하는 것은 대학 입학 전까지 대부분 단체생활을 할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는 '평범한' 환경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 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점들이 발생했다.

학교의 규모가 작고, 집단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좁은 기숙사에서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서로서 많이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겪으면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배려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본인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있었다. 한동대 학생들은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혹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던 회진학생은 공동체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40) 신입생 전원에게 우선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신입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화가 변해 복이 되었다? 이래야되나? 이런 공동체적인 생활인거잖아요. 상당히. 그렇다보니까 계속 사회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 다른 대학과 비교해보았을 때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고 강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회진)

연구자는 한동대 졸업생에게 대부분의 한국의 대학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는 인성교육을 그 교육목적에 두었음에도, 특별히 한동대가 인성교육을 잘 시키는 대학으로 소문이 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해라~ 이야기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잖아요. 양심시험(무감독시험)을 치잖아요.(사랑)

학생들은 '정직'이라는 덕목과 관련해서 '무감독시험'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시험지 상단에 정직하게 시험 칠 것을 확인하는 곳에 사인을 하면서,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하는 것 보다는 내 양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 한 번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컨닝을 했지만, 그 후 양심의 가책이 들어 컨닝이 '질색할 정도로' 싫어졌고, 정직하지 못했을 때를 경험해봄으로, 정직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교수들과 선배들이 보여주는 본 역시 학생들이 인성을 배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러 학생들은 교수들의 인격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수업 시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꼭 답을 찾아오는 것, 시험 때 학생들에게 과일을 사다 주시는 것, 집으로 초대해서 격의 없이 사적인 이야기까지 들어주는 것, 학생의 실수로 인한 행정상의 잘못을 5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바꾸어준 것 등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인격을 닮아가고 싶다고 했다.

강조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거예요. 본인이 받으면서, 본인도 배우면서, 베푸는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뭐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무슨 세미나 듣고, 그래야 이런 것 할 수 있디? 아니고 생활에서, 기숙사에서 살면서 선배들과 공부하면서 이런 걸 다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현준)

현준 졸업생은 선배들의 배려를 경험하였기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배려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선배의 교훈은 수업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의 목표에 동의하며, 이런 인성교육을 통한 본인의 성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준 졸업생은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성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본인을 비롯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인성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한동대에서는 인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현준 졸업생 이외에도 여러 연구참여학생들은 본인 및 주변 친구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이런 변화는 인성이 강조되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동대의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3. 전공 선택: 관심과 재능의 발견과정

한동대의 학생들은 전공 선택의 경험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다. 입학생 전원은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간 자신이 관심을 갖는 수업을 듣고, 2학년 1학기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정한 전공은 6학기 때까지 3차례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제2전공, 제3전공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전공별로 인원수 제한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은 성적과 상관 없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무엇을 전공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전공을 선택하는 가운데 본인의 재능은 무엇인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일반 대학교의 학과 시스템은) 교수중심, 학교중심이다. 그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내게 뭐가 맞는가 탐색하다가 거기서부터 자기 전공을 정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되고, 평생동안 그 전공을 가지고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김영길 총장)

한동대의 무전공제도의 취지는 '학생중심' 교육이다. 교수중심, 학교중심 대학처럼, 이 전공의 교수가 이 만큼 있으니, 학생들이 그것에 맞추어야 하는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한동대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실제로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공부가 좋고, 이런 걸 알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문과 이과의 성향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정말 기초과목을 다 들었어요. 심리학개론도 들었고, 프로그래밍도 듣고, 저희 전공인 일반생물학도 듣고, 이것을 다 들으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1학년 때 그 모든 기초과목들을 다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생명과학이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연아)

연아 졸업생은 원래 신학이나 순수화학을 하려고 하였지만, 한동대에서는 신학 및 화학전공이 없었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들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게 된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현재 생명과학 분야의 석사과정중에 있다. 연구참여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입학 후 전공선택의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했다.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구한다. 학교 내에서는 주로 교수님과 주변 학생들에게 도움을 얻는다. 한동대의 이점은 다양한 학년과 전공의 학생들과 직접 교류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일단 같은 팀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구자가 참여했던 팀모임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입생들을 위해서 각자의 전공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소개해주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배의 이야기 뿐 아니라 그 선배의 생활을 직접 봄으로서 전공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선택을 못했어. 고민을 엄청 했지. 교수님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선배들, 책 찾아보고, 뭐 물어보고. 나는 하얀튼 정규 수업보다는, 전공보다는 교양과목, 학교에서 유명인사들을 초빙해서, 사회에서 실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스피커로 나오는 세미나를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 (한준)

한준 졸업생은 자신의 전공을 찾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찾아다녔다. 연구자가 참여했던 전공공개 시간에서도 1학년 신입생들이 와서 새로운 전공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이 자기의 관심과 맞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과목을 들은 연아 졸업생은 '뭇모르고' 지원했던 상담/사회 전공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본인이 가진 '재능'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근데 제가 그런 과목을 다 들으면서 느낀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재능)가 있고, 내가 같은 에너지를 들어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또 특별히 더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상담/사회를 뭇모르고 하려고 했어요. 심리학개론을 들었는데 아닌거예요. 저에게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언니는 같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거예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대학에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연아)

전공선택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태수학생의 경우, 재대 후 4학기가 되던 때에 전공을 다시 바꾸었다. 입학할 때에는 기계를 전공하려고 했지만, 1학년 때 언론정보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흥미분야를 찾게 된 후, 언론/정보를 전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본인의 전공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졸업 후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지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전공선택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였다고 한다. 결국 원래 계획했던 기계로 전공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내가 정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적성이 뭔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미래까지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을 하는 것 같고. (태수)

그리고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팀과 기숙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전공을 하는 친구 및 선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4. 공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사회로의 준비

한동대는 실무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4단계 영어 프로그램, 중국어 혹은 실무한문, 실무 전산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모든 대학이 실시하고 있으나, 한동대는 개교 때부터 졸업 인증제를 실시해왔다. 일반 수업에서 영어강의의 비율은 29.7%이고, 해외교수 비율은 23.9%이다. 입학생 중 약 10%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 학생이고, 일반 학생들은 팀이나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재외국민 학생들로부터 영어와 제3세계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해외봉사도 현장에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GFR(Global Field Research)은 한동대 내 국제지역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오지에 가서 그 곳의 경제, 생활, 정치,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학기 동안 정기적인 훈련을 받고 방학 때 약 2주 정도 실제 지역을 탐사한다.

학생들이 의미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공부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공부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여러 학생들은 대학입학 전 공부의 이유는 근시안적이고, 개인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것 등이 공부를 하는 주된 동기였다. 이런 목표들은 대학 진학 후 그 피상성을 드러내고, 공부를 하는 동기로서의 힘을 잃게 된다고 한다.

좀더 숭고한 목적(higher cause)...그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대중 하자 이런것도 많잖아요. 대중 돈벌고, 대중 취직해서, 대중 이러저. 그런것도 있는데, 또 다른 목적(I have something else). 좀 더 높은 것을 위해서 하나가 애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중략) 나를 위해 하면 언젠가는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질적인 것, 돈벌기 위해서 이걸,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의지가 쉽게 무너지거든요? (중략) 배우는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걸 공부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하는가? 이 공부의 목적이 뭐가?(what is the purpose of this?) 지식에 목적을 주는 것 같아요. (한준)

한동대 이전에 두 학교를 다니고 편입한 병철학생도 공부의 동기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공부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타인 및 사회가 될 때, 공부를 하는 "더 큰 열망, 욕심, 부담, 자급,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동대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한 마디를 꼽으라면 '바쁘다'이다. 학생들이 바쁘게 지내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학습량이 많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몇 학생에게 실제로 한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았지만, 본인들도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고 하여 정확한 시간으로는 계산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한동대의 학업량이 '분명히' 많다고 하며,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타대학 경험이 있는 병철학생은 이전 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면서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지만, 시험과 과제의 양에서 한동대가 더 많다고 했다. 타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한동대 대학원에 다니는 지원학생도, 한동대 학생들의 공부량이 많은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한동대 애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도서관에 있는거하구요. 그리고 과제가 굉장히 많고, 학부생들이요. (중략) 일반 학부는, 시험도 밤 늦게 보구요. 수업하고 나서 방과후에 시험을 봐요. 숙제도 굉장히 많고, 그룹스터디도 굉장히 많구요. 이게 시험기간에만 이러는 게 아니고 평소의 모습이에요. (지원)

5. 신앙: 세상을 보는 기본틀

학생들은 교육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했다. 신앙적으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직접적 경험도 있었고, 다른 배우고 성장에 신앙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비전 및 전공선택을 자신의 신앙과 떼어놓고 보다는 하나로 통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기초 위에 비전과 전공을 맞추어간다고 볼 수 있었다.

한동대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과 관련하여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던 성향과 큰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참여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자신의 기본적 세계관을 키우는 것을 대학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온다고 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은, 신앙에 대해 배워가면서 본인의 신앙과 일상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과 세상,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학생들은 어떤 전공, 어떤 직업, 어떤 삶을 묻기 전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기독교 신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전공,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 졸업생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공부의 의미를 신앙적인 관점을 통해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아야 하는 역할들을 잘 맡아서 잘 하는 것. 법률, 의료, 행정, 경제 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잘 맡아서 청지기로 잘 살아가는 것. (중략) 역할을 감당해내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신학을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대학도 왔고, 초·중고 교육도 받는 거였구나, 하나님과 시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운 것 같고, 또 학교에 있으면, 우리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만이 아니라, 애국하는 길이 다른 나라를 살려주는 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걸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사랑)

사랑 졸업생이 말하는 '청지기', '시민'이라는 의미는 신앙이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나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책임의식은 사랑 졸업생이 왜 초·중고, 대학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갖게 했다. 즉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들이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동대 학생들은 가치관에서의 큰 변화를 겪기도 했다. 특히 회진학생과 현승학생은 공식적 면담이 끝난

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학에서 본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동대는 학위를 받는 기관, 전문성을 기르는 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회진학생은 이 변화를 '라이프 체인지(life changing)', '트랜스포밍(Transforming)', '가치관의 전복'이란 말로 표현했다. 한동대에서의 경험과 그로 인한 그들의 성장은 본인들에게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이 학교에서 정말 라이프 체인지(Life changing)을 경험하고, 막, 완전 가치관이 전복되는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때 모습은. (이런 경험들은) 뭔가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회진)

(개인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죠. 사실은. 한동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따지면 사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죠) 사실은. 저도 그 때 이후로 삶이 바뀌었죠. 가치관도 달라지고. '아! 진짜, 잘 믿고 공부 열심히해서 세상에서 한뼘가리 해야겠다' 라는 마음에서, (하하하) 아 그래...[회진: 트랜스포메이션] (하하하). (현승)

현승학생이 말하는 '한동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신앙적인 가치를 실제 생활에서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이 바뀌고, 본인이 왜 한동대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앙적 '소명'을 찾게 되었다.

V.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경험을 통한 본인의 변화와 그 변화의 영향요인이 포함된 과정을 나누지 않았기에, 교육적 경험과 그 영향요인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논의의 필요상, 이번 장에서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드러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된 영향요인들은 가치적인/비가치적인, 하드(Hard)한/ 소프트(Soft)한, 물리적·제도적인/문화적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념을 대표해서 경성(硬性Hard)·제도적 요인, 연성(軟性Soft)·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공식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경성·제도적 요인과 비공식 교육과정, 구성원 공동체 특성, 구성원의 공유한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연성·문화적 요인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가운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경성·제도적 요인 한동대의 물리적 환경, 공식교육과정 및 제도들은 한동대의 교육목표인 지성, 인성, 영성의 성장을 돕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하게 의도적으로 고안되었다. 팀제도,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학생들끼리의 소통의 기회를 높이고, 무전공제도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재능 중심의 전공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문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무감독시험, 한동대인성교육, 명예제도 위원회등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평가에서도 연구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 교수들이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학생평가도 대부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끼리 더 협력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성·제도적 요인들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 주었다면, 연성·문화적 요인들은 이런 틀과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틀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교수와 학생들 간의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 의식은 그들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규, 비정규 교육과정과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전제되는 교수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교수들의 사명의식, '한동스피릿'으로 대표되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유한 기독교

교 신앙은, 그들의 교육의 목표 및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식, 사명의식, '한동스피릿'의 형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VI. 결론 및 제언

한동대 학생들이 의미있게 여기는 교육적 경험은 좋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를 통한 지식, 인성, 영성에서의 성장이었다고, 각 영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경험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제도적, 연성·문화적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동대 학생들은 공부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하는 필요를 느꼈으며, 대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얼마 전 한 명문대 학생이 대학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퇴를 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주요 목적을 취업으로 여기며 1학년 때부터 취업과 관련된 공부와 학점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조용환, 1999; 서덕화·민혜리, 2009; 이민경, 2008)이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인생에 대해 질문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거나, 혹은 그런 필요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등교육에서의 입시를 위한 경쟁적인 공부에 회의를 느끼며, 공부와 인생의 목적,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용환, 1999; 서덕화·민혜리, 2009; 이민경, 2008).

한동대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있는 배움 및 성장의 경험은 비전에 대한 고민, 인성적인 면의 성장, 적성을 발견한 것, 공부의 의미를 찾은 것, 신앙적인 부분의 성장 등으로 요약되고 이런 경험의 공통점은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물음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경험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재능이 있는가?', '내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목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에 맞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런 한동대 학생들의 반응은 조용환(1999)의 연구결과(41)와 매우 비슷하다. 즉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특장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필요를 느끼고 큰 관심을 보이지만, 그들이 더 의미있게 여기는 것은 공부함의 의미와 목적,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관점을 찾아가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대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의 중요성을 간파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와 사람의 됨됨이를 갖추는 것, 직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신만의 목적을 찾는 것이 취업보다 더 먼저 이뤄야 할 것이라고 여겼고, 인성, 신앙, 일에 대한 동기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다 '좋은(342)'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여기고 있었다. 글로벌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기 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인간적 자질과, 그 일을 해야 하는 확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따지는 일은, 취업 및 진학준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보다 적합한 취업과 진학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341) 조용환(1999)에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에게 가장 의미있는 변화에 대해 조사했을 때, 그들이 가장 신경쓰고 있다고 보고한 취업이나 진학 준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 주체성, 관용성, 현실적 자기이해와 같은 인간적 자질의 성장을 이야기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저자는 취업과 진학준비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간적 자질의 성장이 본인들에게 실제로 더 의미있는 변화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342) 여기서 '좋은'이란 의미는 흔히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혹은 '연봉이 높은'이란 뜻과 '본인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이란 뜻 모두를 포함한다.

둘째, 한동대라는 같은 교육적 환경 속에서도 입학 동기, 희망 직업, 신앙 등과 같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교육적 경험은 차이가 있다.

Braskamp et al(2006)은 학생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택하는 활동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적 경험과 성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그 경험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연구결과와 같이 한동대라는 같은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의 경험은 그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이 목표인 한 학생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진 공동체에서 공부하는 것, 정부의 교육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본인에게 의미있는 일이기며,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한동대에서의 경험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교육학 전공이 있는 명문대로 재수를 결심했다. 반면 명문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재학하고 있던 학생 중에서 한동대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다. 기숙사 생활에 만족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주말마다 가족과 종교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가려는 학생들도 있다. 한동대가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교육적 경험은 신앙적 성장과 관계된 것이었지만, 기독교 정신만 강조되는 한동대 내에서 다양한 시간을 배우기 힘든 점을 주된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도 있었다. 특별히 학생들의 기독교 신앙의 유무는 다양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경험에 차이를 야기했다.

셋째, 팀제도, 무전공제도, 기숙사제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 구성원의 공유된 가치관 등의 교육적 경험의 영향요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대학교육을 통한 학생의 성장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학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Astin, 1993; Light, 2001; Pascarella & Terenzini, 2005; Braskamp et al, 2006).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받고 있었다.

가령, 무전공제도가 아니면 팀제도를 실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공이 정해지고 들어오면 전공이나 학년이 섞이는 팀이 아닌 전공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팀제도가 있다면 무전공제도가 아니면, 결국 팀은 전공에 따라서 묶이기 때문에, 전공과 학년에 상관없이 구성되는 팀제도가 운영되기 힘들다. 팀제도가 있어도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지 않으면 친밀도나 소통의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기숙사생활을 하는 한동대와 같은 소통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일 기숙사 생활은 학교의 규모가 작고, 학교가 시골에 위치했기에 가능했다. 영어와 관련되어서도, 단지 필수 영어학점 및 영어수업 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팀제도, 기숙사, 친밀한 분위기 등을 통해 원어인 교수와 제외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고,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한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는 학생의 내적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영어능력의 향상 및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의 교육의 질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종의 멘토링 공동체인 팀제도에서 구성된 끼리의 활발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이를 위해서는 팀원들간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팀담당 교수가 학생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학생들도 팀모임 이외에서 학생들간의 교류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멘토링 공동체로서의 팀제도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렵겠다. 반면 교수 및 학생이 멘토링 공동체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교수가 연구업적평가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학생들도 기숙사에 살지 않기에 교류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팀제도를 통한 멘토링의 기능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앞의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구성원들의 공유한 가치관을 핵심으로 하는 연성·문화적 요인은 그 자체로서, 또한 경제·제도적 요인들이 잘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윤활유로서 학생들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한동대의 분명한 교육이념은, 그 이념에 동의하는 구성원들을 모이게 했고,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을 교육이념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도록 하였다.

한동대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며, 지성, 인성, 영성에서 고루 성장한 전인적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인적 성장은 학생들로 및 교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공부 및 인생 전반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의미있게 여기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 이런 활발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갖는 사명의식이었다. 교수들은 시간을 내서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편하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수와 학생간, 동료 학생간에 친밀한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한 학생의 이야기처럼 ‘학교 전체가 수업’인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는 그 구성원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형성이 학생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Astin, 1993; Braskamp et al, 2006; Light, 2001; Pascarella & Terenzini, 2005).

그런데, 한동대의 이러한 공동체 환경이 조성되는데 가장 중심된 역할은 한 것은 교육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동대의 교육이념은 Kuh et al(2005)에서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자원과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비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 다양한 방면으로 분명하게 제시된 한동대의 교육이념은, 같은 이념을 공유한 교수들을 모이게 했고, 이렇게 모인 교수들은 교육과정 및 제도들을 그 교육이념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맞게 구안해 내었다. 무전공제도, 팀제도, 무감독시험, 전원 기숙사정책, 평가제도, 인성 및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은 이러한 한동대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분명하게 정해진 교육이념과 이에 맞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및 제도는, 한동대의 교육이념에 동조하는 학생들을 모이게 했다.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바탕하여 공부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숙고하게 함으로써 지성, 인성, 영성 모두를 아우르는 전인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이념을 이루기 위한 교육과정과 제도가 준비되었고, 그런 교육과정과 제도의 취지에 동조하여 본인의 시간과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길 원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그에 따라 대학에서의 경험을 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어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그 이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적성 및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제도적 요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한동대 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경험들은 사람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고 이런 활발한 소통은, 다양한 제도는 물론, 구성원들끼리의 공동체 의식, 공유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교육적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혁신 뿐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그런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각 대학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대학의 구성원과 공유하여 각 대학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분명한 교육이념은 이에 동조하는 구성원들을 모으고, 그 구성원들은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을 그 이념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가갈 수 있다. 특히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의 중심이 되는 분명한 교육이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영(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청목출판사.
- 김경희·정은희(2000). 대학수업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성숙의 장으로서의 대학수업. *교육이론과 실천*, 10(2), 81-120.
- 김안나·이병식(2003). 대학생들의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0(1), 367-392.
- 김영애(2004). 갈대상자. 서울:두란노.
- 김은아(2009). 대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교육적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4), 877-895.
- 김정태(2010).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서울: 갤리온.
- 김형관·신현석·서민원·황기우(2001).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요인이 학생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등교육연구*, 12(2), 117-154.
- 김형관·신현석·서민원·황기우(2002). 대학생의 학업성취요인 분석 연구: 대학정책의 변화를 위한 기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0(1), 169-186.
- 류지성·박용규·배성오·이갑수·조희재(2006). 대학혁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상욱(2001). 대학생 ‘학화’의 학습공동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빅종출(1999). 신입생의 대학문화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학생연구(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발간)*, 27, 167-192.
- 서덕희·민혜리(2009). 고등교육에서 질적 수월성이란 무엇인가?: 한 명문대학교 학부생들의 “공부”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2), 51-101.
- 서민원(1995a). 대학교육의 효과성 요인의 탐색(II): 대학교육 과정의 개념화와 규정. *고등교육연구*, 7(1), 211-244.
- 서민원(1995b). 대학교육의 효과성 요인의 탐색(III): 성과변인 탐색과 요인 타당화. *고등교육연구*, 7(2), 63-98.
- 서민원(1997). 대학교육의 효과: 측정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10(1), 5-41.
- 서민원(2003). 다층모형의 논리적 구조와 적용: 대학교육의 효과 측정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16(2), 43-63.
- 신정철·정지선·신택수(2008a).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287-313.
- 신정철·정지선·김양선·박은경(2008b). 고등교육의 학문적 연구 동향 분석: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5(3), 167-193.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신현석(2008). 대학구조개편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한국교육학연구*, 14(3), 171-202.
- 오영재(2006a). 대학 편입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2), 451-474.
- 오영재(2006b).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문제연구*, 25, 141-161.
- 오영재·박행모·손준중(2001).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대학조직 내 제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3), 207-231.
- 오욱환(2003). 한국 대학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혁 방향의 구상. *한국교육*, 30(2), 317-341.
- 오제은(2009). Fowler의 신앙발달단계 이론의 문화적 타당성 검색: 국내 기독교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0(2), 831-847.
- 윤여각(1997). 태국대학교 대학원의 학문적 수월성 유지 기제에 관한 문화 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경(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입시교육과 진로경험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1, 79-102.
- 이돈희(1993). *교육적 경험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전제아(2005).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사례 분석. *인간연구*, 9, 5-31.
- 조용환(1999). 대학교육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여대생들의 홀로서기를 중심으로.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pp.289-322). 서울: 교육과학사.

최상덕·김기수·장수명·채재은·정규열(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운·이병식(2008).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199-222.

최정운·이정미·정진철·성태제(2007).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한동대 사람들(1995). 우리는 21세기로 간다. 서울: 두란노.

황정규·서민원(1995). 대학교육의 효과성 변인의 탐색(I): 대학교육 여건변인의 요인구조. 교육학연구, 33(5), 45-74.

KBS (2004.12.19 방영). 대학 선발보다 도전이다: 어느 지방대의 도전.

Astin, A.W.(1999).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0(5).

Astin, A.W.(200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San Fransico: Jossey-Bass.

Astin, A. W.(2004). Why Spirituality Deserves a Central Place in Lib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 90(2), 34-41,

Astin, A. W., & Astin, H. S.(2007). "Big Questions". Liberal Education, 93(2), 28-33.

Backam, A.(2009). Preparing University Students for Cross-cultural Leadership Roles: An Ethnographic Case Study.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Bolman, L. G. & Deal, T. E.(2004). Reframing organizations: Artistry, choice, and leadership.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Braskamp, L. A., Trautvetter, L. C., & Ward, K.(2006). Putting students first. San Francisco: Jossey-Bass.

Chickering, A. W.(1993).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CA:Jossey-Bass.

Chichering, A. W., Dalton, J. C, & Stamm, Liesa. (2007). Encouraging Authenticity and Spirituality i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Clark, B. R.(2008). On higher education.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lark, B. R.(1972). The organizational sage in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2), 178-184.

Clark, B. R. (1971). Belief and loyalty in college organiz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2(6), 449-515.

Creswell, J. W.(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흥식·정선숙·김진숙·권지성(역). 질적연구방법론. 서울:학지사. (원서출판 2007)

Dewey, J. (2002). Experience and education. 박철홍(역). 아동과 교육과정/경험과 교육. 서울: 문음사.

Ewell, P. (1985). Assessment: What's It All About? Change, November/December, 32.

Gehrke, S. J.(2008). Leadership through Meaning-Making: An Empirical Exploration of Spirituality and leadership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9(4), 351-359.

Glesne, C. (2008). 안혜준(역). 질적연구자 되기. 서울:아카데미프레스. (원서출판 2006)

Hoppe, S. L.,& Speck, B. W. (2005). Spirituality in Higher Education. CA: Jossey-Bass.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Vol. 1). San Francisco: Harper & Row.

Kolb, D. A.(1976). Learning style inventory technical manual. Boston: McBer.

Kronman, A. T.(2009). Education's End: Why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given up on the meaning of life. 한창호(역). 교육의 종말. 서울:모티브북. (원서출판 2007)

Kuh, G. D.(1995). The Other Curriculum: Out-of-class Experiences associated with student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2), 123-155.

Kuh, G. D., Kinzie, J., Schuh, J. H., Whitt, E. J., & Associates. (2005). Student Success in college: Creating conditions that matter.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nd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Kuh, G. D., Whitt, E. J. (1988). The invisible tapestry: Culture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AAHE-ERIC/Higher Education Research REport No. 1.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Lewis, H. R. (2008). Excellence without a soul: Does liberal education have a future?. 허명수 외(역). 하버드가 잃어버린 교육. 포함: 한동교육개발센터. (원서출판 2007)

Light, R. J. (2001). Making the most of college. Harvard University Press.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Miller, D. L.(1998). Discipling Nations. WA: YWAM Publishing. 윤명석(역).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울: 예수전도단.

Muuss, R. E.(1999). Theories of adolescence. 정옥분·윤종희·도현심(역). 청년발달의 이론. 서울:양서원. (원서출판 1996)

Palmer, P. J.(2000).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원서출판 1993)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Vol. 2). San Francisco, CA:Jossey-Bass.

Pascarella, E. T.(1985). College environmental influences on learning and cognitive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In J. Smart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Vol. 1, pp. 1-64). New York: Agathon.

Park, S. D.(2000). Big questions, worthy dreams. San Francisco: Jossey-Bass.

Pearcey, N. R.(2006). Total Truth.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홍병룡(역). 완전한 진리. 서울: 복있는 사람. (원서출판 2004)

Perry, W. (1970). Forms of intellectual and ethical development in the college years: A scheme. San Francisco: Jossey-Bass.

Perry, W. (1981). Cognitive and ethical growth: The making of meaning. In A. Chickering & Associates (Eds.), The modern American college: Responding to the new realities of diverse students and a changing society (pp. 76-116). San Francisco: Jossey Bass.

Pope, L. (2008). Colleges that change lives: 40 Schools that will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colleges. 김현대(역).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서울: 한겨레출판. (원서출판 2006)

Schein, E. H.(2004).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San Francisco: Jossey-Bass.

Smith, Cheri. (2004). Incorporating faith, spirituality, and religion into college counseling and service. College Student Affairs Journal, 23(2), 208-212.

Speck, B. W.(2005). What Is Spirituality?. In S. L. Hoppe, & B. W. Speck. (2005). Spirituality i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Stake, R. E.(2000). The art of case study. 홍용희·노경주·심종희(역). 질적사례연구. 서울:창지사. (원서출판 1995)

Tisdell, E. J.(2003). Exploring Spirituality and Culture in Adult and Higher Education. CA: Jossey-Bass.

Wolf-Wendel, L. E.,& Ruel, M.(1999). Developing the whole student: The collegiate ideal.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05, 35-46.

Yin, R. K.(2005). Case study research. 신경식·서아영(역). 사례연구방법. 서울:한경사. (원서출판 2003)